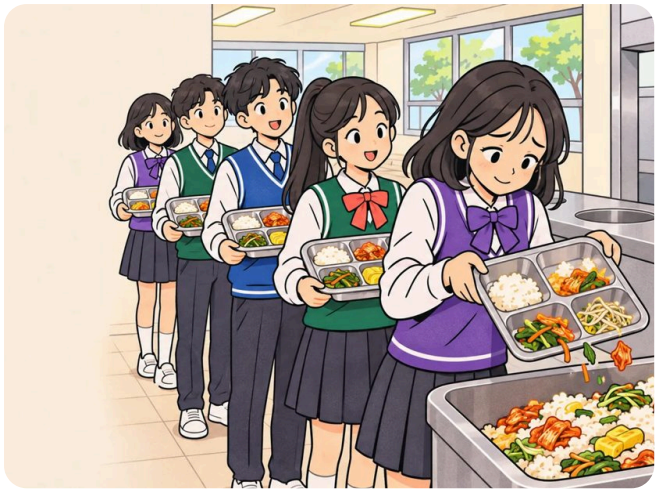


이야기 카드 1

남겨지는 급식

점심시간이 끝나면 잔반 통이 늘 가득 찬다. 유나는 반찬을 받을 때 양을 말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다 받고 남긴다. 가은이는 "맛없는 걸 어떡해."라고 말한다.



이야기 카드 2

엉망이 된 분리수거함

교실 뒤 분리수거함에는 플라스틱 칸에 종이가, 종이 칸에 먹다 남은 음료 컵이 들어 있다. 이번 주 당번 민호는 "나만 제대로 하면 뭐 해."라며 한숨을 쉰다.